

민주, 박순애 無청문 임명 등 부실인사공세 잇따라

“음주운전 예비살인이라더니...국회 정상화 찬물”

“尹 정부 인사, 막무가내식...브레이크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무(無) 청문 임명 강행 등 윤석열 정부의 부실인사에 대한 공세를 쏟아냈다.

우선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순애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한 것은 내내 국민 간 보기만 하다가 악수를 둔 것”이라며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 살인이라고 비판한 것은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국 만취음주운전 전력자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며 “취임 50일 만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도덕성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성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사가 가장 큰 문제라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며 국민이 보낸 경고를 가볍게 무시하더니 국회가 정상화되는 첫날에 찬 물을 끼얹듯 무청문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며 “심지어 오늘(은 도어스테핑에서) 연이은 부실인사 지적에 대해 ‘전 정권 인사 중에 훌륭한 사람 봤냐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냈다’고 비판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55일째 공석인 복지부 장관이 또 다시 낙마하게 된 건 윤석열 정부의 부실인사가 불러온 대참사”라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비서실장부터 무능한 인사 검증 라인을 문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전날 여야 합의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데 대해서도 “파펙트 스톱의 민생경제 위기 속에 임법부 공백을 더 이상 지속해선 안 된다는 일념으로 국회의장이라도 먼저 선출하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결단 그리고 대승적 양보와 인내의 결과였다”고 자평했다.

그는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 이행으로 여야의 무너진 신뢰 회복한다면 국회의 전면적 정상화는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첫 일성으로 민생경제 특위와 인사청문 특위를 제안한 만큼 한편으로는 원구성 합의를 책임있게 추진하면서 민생 입법과 인사청문 등을 위한 해당 특위 구성과 활동을 적극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 같은 정쟁으로 낭비할

시간은 없다”며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막무가내식’이며 ‘브레이크가 없다’고 꼬집었다.

양 원내부대표는 “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 ‘만시지탄(晩時之歎·기회를 놓치고 일이 지나간 뒤에 때늦은 탄식을 하던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이라고 비유하며 만취 음주운전 전력과 조교 갑질 의혹이 있는 박순애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원칙 없는 인사 대참사의 종착역은 어디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측근 지인인사, 법무부 장관 보은인사 등 인사검증 자체가 무의미하다. 윤 대통령은 어제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그런데 송 내정자는 윤 대통령의 대학 직속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4년 회식 자리에서 제자들의 외모에 상중하를 매겨 폄박하고 성희롱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대기업 규제에도 반대하는 재벌 옹호자로 알려져 공정위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 원내부대표는 “검증이 무슨 소용인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건가. 윤석열 대통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 기준부터 마련하고,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도 없이 막무가내로 임명 강행한



국세청장, 합참의장, 교육부 장관은 모두 자진 사퇴시켜라”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을 동시에 장악하려는 무리한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핵심 최측근 한동훈 법무장관과 고등학교와 대학교 후배인 이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쌍두마차로 내세워 검찰과 경찰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이는 군사 정권에서나 있던 일”이라며 “민간정부에서는 유례가 없는,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행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초선 소장파인 이탄희 의원은 현 상황을 ‘역대급 인사참사’에 비유하면서 윤 대통령이 ‘전 정권 인사 중 훌륭한 사람 봤냐고 발언한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빠 찬스 정호영, 방석

집 김인철,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음주운전 박순애, 어제는 성희롱 발언 송옥렬까지, 인사 참사가 어벤저스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성과 사과로도 모자랄 판에 윤 대통령은 오늘 또 이전 정부 궤계를 댄다. 문재인 정부 타령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가’라며 “본인은 물론 같은 당 최재형 의원에 이전 정부 출신 사람이라는 사실은 잊었나 보다. 대통령이 뱉은 말에 최 의원까지 맞게 생겼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비록 정치적으로 가는 길이 달라졌을지라도 최소한의 선은 지켜야 한다. 전 정권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냐는 언사는 전 정권 출신 인사로서 도의적 선을 넘었다”며 “정치적으로도 전 정권 레코드만 반복한다면, ‘이럴 거면 정권교체 왜 했냐는 물음에 답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호기자

국방부, 전쟁기념관 ‘북한 도발관’ 확대



국방부가 전쟁기념관 내 ‘북한 도발관’을 확대한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2018년도에 전쟁기념관 내 전시실 개편으로 북한 도발 전시실이 축소돼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돼왔다”며 “이 부분을 올해

文정부 때 북한 도발 전시실 축소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전시와 구성에 관한 세부 내용은 향후 기본 설계들을 이루는 과정에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인수한 전쟁기념사업회의 지난달 23일 ‘북한의 군사도발과 위협 상설전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사업회는 3층 도서자료실 약 248㎡ 공간을 활용해 전시관을 조성한다. 예산 8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국군발전실 재개편 작업 과정에서 북한 도발 전시실 진열장 전시물들을 한 진열장에 모으는 방식으로 전시공간이 축소됐다.

오유나기자

임종석, 이재명·송영길 싸잡아 비판...“반성도 성찰도 없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길 전 당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두 사람을 겨냥해 “엄지없는 행동을 보면 화가 난다”며 “기본과 상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돌아오길 바라”

식을 벗어난 행동을 보면 참피함을 느낀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선 이후 민주당 당대표와 대선 후보의 행동이 그러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는 송영길 전 대표와 이 의원이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데 대한 비판인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같은 식구가 이런 행동을 하면 화가 나고 참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디라도 숨고 싶다”며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고 뉴스를 보지 않고 정치 얘기만 나오면 화부터 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데도 정작 본인들은 자신들의 아

픔을 돌보느라 반성도 성찰도 없다”며 “민주당의 평가도 핵심을 피하고 에두르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갈등과 분열이 커질까 두려운 것일 거다. 하지만 평가와 쇄신은 철저히 국민들의 정서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 위기의 본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통렬한 내부 비판과 반성, 그리고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광주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이슬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